

① | 구로몬(黒門)

메이지(明治) 33년(1900)에 완성된 오와리 도쿠가와가의 저택의 잔존물이고 모두 느티나무로 만든 '산겐아쿠이문(三間薬医門)'입니다. 즉 이어진 '와키 나가야(脇長屋)'와 담을 포함해서 쇼와(昭和) 20년(1945) 대공습에 의한 소실의 피해를 면한 얼마 안되는 유산 중의 하나이며 부케야시키(武家屋敷, 무가집)의 옛모습을 전해주는 귀중한 건축물군입니다.

② | 류몬노 다키(龍門の瀧)



'류몬바쿠(龍門瀑)'라고도 불리우며 잉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서 물이 된다고 하는 등 용문 전설의 의한 폭포를 재현하여 만들었습니다. 오와리가 에도 시모야시키(下屋敷, 교외 별장)의 유적지에 있던 폭포의 돌을 이용해서 이번에 도쿠가와엔에서 재현했습니다.

간분(寛文) 9년(1669) 제2대 영주 미쓰토모(光友)의 시대에 건축이 시작된 오와리가 에도 시모야시키 도야마 야시키(戸山屋敷)에는 당대 제일이라는 정원이 있고 원내에는 '메이호우카이(鳴鳳溪)'로 불린 계곡을 구성했습니다.

도야마 야시키는 현재의 도쿄 신주쿠구 도야마초 근처에 있고 이제는 옛모습이 남아있는 곳도 얼마 안되지만 헤이세이(平成) 10년(1998)에 와세다대학교(早稲田大学)의 부지 내에서 에도시대의 대규모 정원석 배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와세다대학교와 신주쿠구 교육위원회에 의한 조사 결과 도야마 야시키에 있던 류몬노 다키의 잔존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굴된 석재는 '이즈이시(伊豆石)'라고 불리는 암산암으로 총 수 약 360개, 총 중량 약 250t에 달해 에도성 축성했을 때 남은 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쿠가와엔은 와세다대학교에서 양도받은 그 석재를 폭포의 누오치(布落ち, 물을 떨어뜨리는 방법)나 호안, 강바닥, 정경들로 쓰는 동시에 수량을 급격하게 늘리는 장치를 만들어 도야마 야시키의 류몬노 다키를 부활시켰습니다.

(사진/신주쿠구 교육위원회 소장)

나고야성 혼마루(本丸)에서 동쪽으로 약 3km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쿠가와엔(徳川園)은 도쿠가와 고산가(御三家)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었던 오와리현(尾張藩) 제2대 영주 미쓰토모(光友)가 겐로쿠(元禄) 8년(1695)에 축조한 은거지인 오조네 시모야시키(大曾根屋敷)로 이후한 것을 기원으로 합니다. 당시 부지의 크기는 약 13만평(약 44 ha) 정도의 넓이였고, 정원에 있는 연못에 16개의 노가 있는 배를 띄웠다고 합니다. 미쓰토모가 죽고나자 이 곳은 오와리한의 가로(家老·사무장)였던 나루세(成瀬), 이시코(石河), 와타나베(渡邊) 세 대가에게 넘겨졌고, 메이지(明治) 22년(1889)부터는 오와리 도쿠가와 일족의 저택이 되었습니다. 쇼와(昭和) 6년(1931), 제19대 영주 요시치카(義親)가 저택과 정원을 나고야시에 기부하여 시에서는 이 곳을 보수하여 이듬해 '도쿠가와엔'으로 일반에 공개, 시민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공습으로 거의 모든 건물과 수목 등이 소실되었습니다.

전후 평범한 공원으로 이용해 온 도쿠가와엔은 헤이세이(平成) 13년(2001)부터 시작된 대규모 보수공사를 거쳐 헤이세이(平成) 16년(2004)에 또 다시 일본정원으로 개원했습니다.

도쿠가와엔은 애다카와(矢田川)의 하안단구를 살린 높낮이의 차가 있는 지형, 기존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조업수림 압도적인 입체감을 자랑하는 커다란 정원석의 배치가 특징이고 변화무쌍한 경관으로 대담하게 바꾸어 조성하였습니다.

도쿠가와엔 명소 명칭

'류센코 (龍仙湖)', '간센로우 (觀仙樓)', '오조네노 다키 (大曾根の瀧)', '도라노오 (虎の尾)', '고센쿄 (虎仙橋)', '즈이류테이 (瑞龍亭)', '시수이안 (四睡庵)'
"도쿠가와엔은 오와리 도쿠가와가의 제2대 영주 미쓰토모(光友)가 만들어서 별장으로 사용하던 곳이었다. 미쓰토모의 시호는 즈이류인(瑞龍院)이라 한다. 오와리 도쿠가와가의 오조네 별저(別邸)와 그 토지를 나고야시에 기부한 제19대 요시치카(義親)는 말레이시아에서 호랑이를 사냥한 적이 있어 '호랑이 사냥의 영주님', '호랑이 사냥의 후작님'이라 불리며 유명해졌다. 용과 호랑이는 고대 중국에서부터 영물로서 일본에 전해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또한 도쿠가와엔에 연고가 깊은 미쓰토모, 요시치카 두 사람과 관련지어 이름을 지었다."

오와리 도쿠가와가의 제21대 영주 도쿠가와 요시노부(義宣)의 말

시 설 안내

■ 입장료/ 대인:300엔 (중학생 이하 무료)

(타 시설과의 패키지 관람, 단체관람 등 각종 할인이 있습니다.)

■ 개장 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입장은 오후 5시까지)

■ 휴관일/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12월 29일 ~ 1월 1일

■ 주의사항/

- 보도 이외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 동·식물을 잡거나 훼손하지 마십시오.
- 애완용 등의 개, 고양이를 데리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 (맹도견 등을 제외합니다.)
- 임어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 다른 관람객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십시오.
- 보행이 불편하신 분은 안내소에 말씀 해 주십시오.
- 호출 방송등은 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문의/

나고야시 도쿠가와엔 관리사무소

〒461-0023 나고야시 하기시구 도쿠가와쵸 1001 TEL 052-935-8988 FAX 052-937-3847

(HP) <https://www.tokugawaen.aichi.jp/>

제자/ 휴호 : 득코우산 겐츄지 제35세 주직(住職) 무라카미 겐쓰이



徳
川
園



도쿠가와엔

오조네 방면



3 | 류센코(龍仙湖)



바다를 본 듯 수면 주위에 불만한 곳을 배치하는 '지센 가이유시키(池泉回遊式)' 정원의 중심적인 존재로 지하수를 수원으로 합니다. 흑송을 배경으로 떠운 섬들, 큰 바위 옆의 단풍, 물가를 건널 때 쓰이는 징검돌, 쑥 솟아오른 사취, 오두막과 같은 쉼터가 있는 나루터 등을 돌아보며 즐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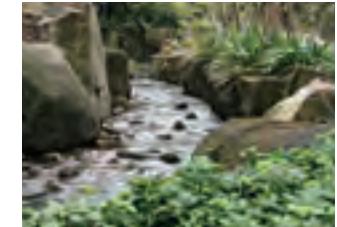
5 | 즈이류테(瑞龍亭)

건너편에서 세이코테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오다 우라쿠사이(織田有樂斎)를 시조로 하고, 이전에는 오와리 도쿠가와가의 비중있는 다도의 한 형식인 비슈 우라쿠류(備州有樂流)에 기인하여 우라쿠 취향의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4 | 세이코테(西湖堤)

백낙천(白楽天), 소동파(蘇東坡)등 옛날부터 문학인이 동경하던 경승지인 중국 항조의 서호(西湖) 호면을 직선적으로 나누는 제방을 축경한 것으로 미국 정서를 일본 정원에 반영했습니다. 도쿄의 고이시카와 고라쿠엔(小石川後楽園), 히로시마의 슈쿠케이엔(縮景園) 등 현존하는 영주 정원에서도 보여지는 양식입니다.



6 | 도라노오(虎の尾)

심산유곡의 산수화를 생각나게 하는 계곡의 미를 표현하고 있고 초여름에는 신록이,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듭니다. 모밀한 밤나무숲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이 단풍나무들 사이를 굽이쳐 류센코로 흐르는 모습은 호랑이 꼬리와 같고 '호랑이의 꼬리를 밟으면 안 되는 것'에서 '강에 발을 들어 넣어서는 안 됨'을 연상시켜 줍니다.



7 | 고센쿄(虎仙橋)

도라노오에 놓인 노송나무로 만든 나무다리로 5m 아래에는 계류를 굽어 보고, 그 하류에서 류센코를 조망 할 수 있습니다.



8 | 오조네노 다키(大曾根の瀧)

도라노오를 다 오르면 다르다는 낙차 6m의 삼단 폭포입니다. 상·중·하단의 돌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물보라의 표정에 변화가 있습니다. 폭포 뒤에 있는 산은 도쿠가와엔에서 가장 높아서 류센코 수면과의 표고차는 약 11m입니다. '오조네'는 옛날부터 이 근처의 지명이었습니다.



9 | 시스이안(四睡庵)

매화나 복숭아 나무에 둘러싸인 쉼터로 벽촌과 같은 풍경속에 오도카니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스이'란 선(禪)의 경지를 나타내는 화제(画題)의 하나로 '부칸(豐干)', '간잔(寒山)', '짓토쿠(拾得)'의 세 명이 호랑이와 엉켜 자고 있는 정경을 나타냅니다.



모란(牡丹)

봄에는 도쿠가와엔 일대에서 약 1000주의 모란이 호화롭게 피어납니다. 꽃을 구경하기에 좋은 시기는 4월 중순과 하순입니다.



창포(花菖蒲)

에도시대에 개량되어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애도계 등을 중심으로 약 1700주의 창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꽃구경하기 좋은 시기는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입니다.